

국내산 육류중 유해중금속 잔류실태에 관한 연구

이명현*, 정갑수, 박종명, 이희수
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

축산물중 유해중금속의 잔류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식육의 안전성 확보를 통하여 공중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국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소 55두, 돼지 60두 및 닭 52수를 대상으로 근육과 신장에서 잔류성이 강한 비소, 카드뮴, 수은 및 납 등 4종의 유해중금속 잔류실태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.

1. 소 근육중 비소, 카드뮴, 수은 및 납 4종의 유해중금속 평균잔류량은 각각 0.02 ± 0.07 , 0.03 ± 0.04 , 0.03 ± 0.18 및 0.01 ± 0.03 ppm이었으며 소의 신장에서는 각각 0.03 ± 0.05 , 0.07 ± 0.22 , 0.06 ± 0.20 및 0.04 ± 0.06 ppm이 검출되었다.
2. 돼지의 경우에는 근육중 비소, 카드뮴, 수은 및 납의 평균잔류량이 각각 0.01 ± 0.04 , 0.04 ± 0.09 , 0.03 ± 0.16 및 0.02 ± 0.05 ppm으로 분석되었으며 신장의 평균 잔류량은 0.02 ± 0.04 , 0.05 ± 0.08 , 0.06 ± 0.21 및 0.02 ± 0.05 ppm으로 나타났다.
3. 국내산 닭고기의 유해중금속 평균잔류량은 비소, 카드뮴, 수은 및 납이 각각 0.02 ± 0.08 , 0.01 ± 0.03 , 0.02 ± 0.11 및 0.003 ± 0.01 ppm이었으며 신장에서는 0.07 ± 0.12 , 0.03 ± 0.05 , 0.10 ± 0.27 및 0.03 ± 0.04 ppm이 각각 검출되었다.